

스타들의 지지선언으로 대선 열기 '후끈'

가수부터 영화감독까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등 진보 성향 후보들에 상대적 집중

5·9 대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배우부터 가수, 영화감독, 만화가까지 각 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의 후폭풍 탓인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된 편이다.

이 중 아무래도 지지를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많았다.

'귀환' 조정래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 56명은 일찌감치 지지선언을 했고, 스포츠스타 최윤호 수영선수 등 체육인 2,000여명도 지지선언을 내놨다.

이밖에도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는 선대위 대변인이 됐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만화 '비행'의 윤태호 작가는 찬조연설을 했고, 가수 강산에 씨와 이은미 씨,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방송인 김미화 씨도 각종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문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앞서 가수 정인권 씨가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 후

보 유세에 나서면서, 그의 부인인 배우 최명길 씨도 이날부터 안 후보와의 합동유세전에 뛰어들었다.

이밖에 복싱 세계챔피언 출신 장정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광선, 양영자 씨 등도 지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지지선언이 많지는 않았지만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나서 주목을 받았다.

영화 '아가씨'의 박찬욱 감독은 먼저 심 후보 측에 연락해 "당연히 연락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왜 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의사를 전했다. 박 감독은 이후 '촛불시민들에게 드리는 부탁'이라는 제목의 지지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과 '라이터를 켜라'의 장항준 감독도 심 후보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심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소설 '소수의견'을 쓴 손아람 작가는 문 후보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자 문 후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일정에는 개그맨 김중국 씨가 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서는 보



전북도민체전 개최 지난 28일 부안군 스포츠파크주경기장에서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행사를 가졌다. 전북도민체전은 30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순창지역 선수단을 격려하는 모습.

수진영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은 예년에 비해 찾기 힘들다.

여기에도 문화예술계의 지지 움직임이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개 지지선언과 SNS를 통한 공개발언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이 유세차량에서 마

이크를 잡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다.

현정부의 블랙리스트 여파로 연예인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또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뉴스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 성료

최근 남원 춘향골체육공원 롤러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2017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는 12개국 1,600여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가하여 대규모로 치러졌다.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던 이번 대회 뒤에는 10년째 묵묵히 이번 대회를 치러낸 남원시민들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한 남원시가 있었다.

특히 남원시는 선수단이 마음껏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음료, 차량, 우수한 통역 제공 등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이 부담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선수들의 요구보다 한 발 앞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대회 중에는, 경기장 주변에 남원시의 시화인 철쭉이 만개하여 대회를 찾은 많은 관계자들, 특히 해외 선수단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해 강한 인상을 심어 주어, 일부 국가의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남원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년 선수단 규모를 증가하여 파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는 사드배치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전년도 150여명이 참가했던 중국 선수단이 불참하였지만 대만, 홍콩 등이 전년대비 약 2배 가량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태국 선수단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최고의 국제 대회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시, FIFA U-20 월드컵 '트로피가 온다' 행사 개최

진품 트로피 전시, 직접 보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의 열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대회 우승팀에게 돌아갈 트로피가 개막 전 개최도시 전주를 찾아온 것.

전주시는 지난 29일 고사동 중앙살림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광영진 조직위 부위원장, 차범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피가 온다' 행사를 개최했다.

'트로피가 온다'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U-20월드컵의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품 트로피를 전시, 시민들이 트로피를 직접 보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FIFA U-20 월드컵 트로피는 축구공 모양으로 지구를 받치는 형태를 띠며, 트로피의 앞면과 뒷면에는 대회 공식명칭과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으며, 향후 우승팀이 새겨진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를 대표하는 기업놀이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가마를 활용해 트로피 입장식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전주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행사장에 참여한 서포터즈와 일반 관광객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대형 응원 퍼포먼스를 통해 열기 넘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24개팀 참가팀 국가에 대한 소개와 역대 한국팀 결과 등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응원댄스, 퓨전난타 등 문화공연과 함께 축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선보인 FIFA U-20 월드컵 트로피는 축구공 모양으로 지구를 받치는 형태를 띠며, 트로피의 앞면에는 대회 공식명칭이, 뒷면에는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으며 향후에는 우승팀이 추가돼 새겨진다.

지난 14일 제주에서 시작된 '트로피가 온다' 행사는 이날 전주에 이어 오는 5월 7일까지 6개 개최도시를 모두 순회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고사동 중앙살림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광영진 조직위 부위원장, 차범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피가 온다'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대회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걸 느낀다. 전 세계 축구팬들의 눈과 귀는 이미 전주를 향해 있다"라며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 세계 축구 최강

팀이 전주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만큼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바이에른 뮌헨, 5년연속 분데스리가 우승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뮌헨)이 5년 연속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뮌헨은 30일(한국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열린 2016~2017시즌 분데스리가 31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 원정 경기에서 6-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시즌 성적 22승7무2패(승점 73)를 기록한 뮌헨은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2위 라이프치히(승점 63)를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통산 27번째이자 5시즌 연속 우승이다.

분데스리가에서 한 팀이 5년 연속 우승한 것은 올해 뮌헨이 처음이다.

카를로 안첼로티(58·이탈리아) 감독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제외하고 AC밀란(이탈리아), 첼시(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그리고 이번 뮌헨의 우승을 더해 유럽 빅5리그 중 4개 리그에서 우승한 첫번째 감독이 됐다.

그는 올해 슈퍼컵에 이어 리그 우승까지 2관왕을 이뤄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전반 19분 알라바의 프리킥 선제골로 출발을 알린 뮌헨은 전반 37분 레반도프스키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앞서나갔다.

레반도프스키는 전반 45분 킨슬리 코망의 크로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멀티골을 작성했다.

뮌헨의 공격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후반 21분 아르엔 로빈이 팀의 4번째 골을 만들었고 후반 35분과 후반 40분 뮐러와 김미희의 추가골을 더해 6-0 대승을 거뒀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